

반유대주의의 원인과 해결방안*

이 중 원**

주제분류 윤리학

주요어 반유대주의, 희생양, 홀로코스트, 포그롬, 공감, 책임, 현대

요약문

본 소고에서는 중세와 근대 유럽의 역사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반유대주의의 희생양이 되었던 원인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이러한 비극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도덕적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인지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유대인들이 희생양이 되었던 주요사건으로 중세의 흑사병과 십자군 전쟁, 그리고 근대의 포그롬과 홀로코스트가 대표적이다.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 유대인들이 우물이나 샘의 근원에 독을 집어넣었다는 소문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의해 희생당했다. 또한 십자군 전쟁 시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군에 의해 약탈당하거나 학살당했으며, 2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나치에 의하여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희생되었다.

중세시대 유대인들은 봉건제도의 틈새에서 자신들만의 고유 영역을 구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수민족으로서 늘 공동체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유대인들은 전쟁이나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 변동기에는 쉽게 표적이 되어 희생양이 되었다. 공동체가 폭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마다 유대인들은 무자비한 폭력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채 고통을 겪었던 것이다.

유대인들이 희생양이 되었던 주된 원인은 중세 유럽에 널리 퍼져 있었던 반(反)유대주의적 정서 때문이었다. 반유대주의는 종교적 원인, 경제적 원인, 문화적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와 폭력으로 분출되었다. 포그롬과 홀로코스트는 유대인을 악의 원흉으로 이

* 이 논문은 2018년 6월 18일 한국성서학회 주최 전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 계명대학교

데올로기화하여 이들에 대한 증오가 폭력으로 분출된 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유대인 박해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들은 미신적 세계관이나 종교적 편견에 근거한 타자에 대한 경멸이나 혐오가 만들어낸 폭력일 뿐이다. 반유대주의와 같은 비인간화의 하향 나선을 거꾸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첫째, 희생양을 만드는 이데올로기가 지닌 허구와 환상을 해체시켜 극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약자가 처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공감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타자의 얼굴이 나에게 명령하는 “죽이지 말라”는 호소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넷째, 관용을 넘어선 적극적인 환대를 실천함으로써 타자가 공동체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1. 들어가는 말

유대인들은 2천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차별과 핍박을 많이 겪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래, 유대인들의 유랑생활은 계속되었다. 다윗, 솔로몬 시대 유대인들은 잠시 번영을 누렸지만,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멸망과 더불어 그리스와 로마 제국을 거쳐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유대인들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디아스포라로서 정치 없이 살아야 했다.

‘이스라엘 땅’(Eretz Israel)의 유대인들은 강대국들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으며, 때로는 용병이나 상업을 위해 이집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에게 해의 여러 섬들, 그리고 그리스 본토 등으로 흩어져 정착하게 되었다.¹⁾ 폼페이우스가 시리아 원정에서 승리하면서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할 무렵에는 그리스의 지리학자 스트라보(Strabo)가 “사람 사는 세상 치고, 유대인을 받아들이지 않은 곳은 아무 데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지중해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는 대략 70만 명에 달했던 로마제국의 수도에서 유대인의 수는 약 6만 명에 육박했다.²⁾

그리스 로마 시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유산을 충실히 지키면서도, 지역 공동체와 활발한 문화 교류를 하면서 헬라화 또는 로마화를 선도하기도 하였다.³⁾ 유대인들은 시민으로서 인정을

1) Erich S. Gruen, *Diaspora: Jews amidst Greeks and Romans*,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22쪽.

2) 김경현, 「로마제국의 이산(diaspora) 유대인」, 『Homo Migrants』 7(2013), 23쪽.

3)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의 카타콤에서 발견된 500개 이상의 글 중 4분의 3 이상이 헬라어이고, 23%가 라틴어이며, 오직 1%만이 셈어이거나 두 언어가 함께 기록되었다. Jerry L. Daniel, “Anti-Semitism in the Hellenistic- Roman period,”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8 no 1 Mar 1979,

받으면서 도시의 사회, 경제, 문화생활에 기여하기도 했다. 유대인들은 금식과 할례, 안식일 등 독특한 관습을 지닌 집단으로서 종종 무시되거나 멸시당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증오나 적개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은 키케로나 필론 등과 같은 당시 로마 지식인의 기록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⁴⁾ 이로 볼 때 유대인들은 평온한 시기에는 주류 사회와 불협화음이나 갈등 없이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세 이후부터 홀로코스트까지의 전반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의 삶이 평온했다고 볼 수만은 없다. “유대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불운”이라고 했던 독일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Heinrich Heine)의 말이나 모세스 로젠크란츠(Moses Rosenkranz)가 유대민족이 당한 고난을 “눈발 속의 죽음”으로 비유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희생양이 되어 고초를 겪었다.⁵⁾

임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는 유대인들이 겪었던 처참한 상황을 ‘쇠사슬에 묶인 몸으로부터 벗어나려 투쟁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이중성’(the duality of a free spirit that struggles against the body to which it is chained)으로 표현하였다.⁶⁾ 이는 유대인들이 반유대주의나 인종차별주의와 대결하면서도 자신들을 하나로 결속시켰던 민족 정체성이

49쪽.

4) Erich S. Gruen, *Diaspora*, 53쪽.

5) 박설호, 「그대의 무덤은 도망치는 구름 속에 - 모세스 로젠크란츠와 부코비나 시인들의 유대인 박해 시편」, 『독일어문학』 54(2011), 145. 희생양 메커니즘은 르네 지라르(René Girard)가 주목한 개념으로서, 폭력적 성향의 집단적 전이(轉移)현상을 가리키는데, 공동체가 갈등으로 인해 와해될 위기에 처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로에 대한 증오심을 힘없는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희생양에게 쏟아 부어 공동체 내부의 긴장과 불만을 해결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서는 이중원, 「희생양 메커니즘과 폭력의 윤리적 문제」, 『철학탐구』 40(2015, 11), 273-297쪽을 참고하시오.

6) Emmanuel Levinas, “Reflections on the Philosophy of Hitlerism,” (1934), trans. Sean Hand, *Critical Inquiry* 17 (1990), 68-69쪽. 최창모, 「이스라엘과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관계 분석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10/2(2016. 12), 24쪽 재인용.

나 신앙에 종속된 채 끊임없이 자유를 갈구했던 이중적 태도를 잘 드러낸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소수자로서 공동체 주변부에 머물렀기에 법적인 차별을 겪거나 생업의 기회마저 박탈당했고 때로는 무자비한 폭력의 희생양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유대인들은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라 희생양을 만든 장본인으로 바뀌었다. 유대인들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팔레스타인 난민이라는 새로운 희생양을 만들어 이들을 삶의 극단으로 몰아넣고 있다. 영토분쟁을 둘러싸고 발생한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는 대화와 타협, 공존과 상생의 해법을 찾지 않고서는 풀기 어려운 숙제임에 틀림이 없다.

본 소고에서는 중세의 흑사병과 십자군 전쟁, 그리고 근대의 포그롬과 홀로코스트 등을 중심으로 반유대주의의 원인과 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반유대주의가 이데올로기화되어 폭력으로 분출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 자질들이 요청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희생양을 혐오적인 존재로 만들어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메커니즘을 비판함과 동시에 보다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떤 도덕적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지 고찰하고자 한다.

2. 유대인 박해의 역사

역사적으로 공동체에 편입되지 못하고 그 주변부에 머물렀던 소수민족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세의 마녀사냥이나 이교도 핍박, 그리고 집시나 한센씨병환자나 장애인 등은 종종 희생양으로 지목되었는데, 이들 부류에 유대인들도 종종 포함되어 핍박을 받았다.

1) 유대인 박해와 추방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나 혐오가 종종 있었지만 정식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 유대인 박해는 공식 정책이 되었다. 315년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발표한 밀라노 칙령은 유대인들의 권리를 박탈했으며, 테오도시우스 1세는 유대인과의 결혼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관직이나 군대 조직에서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유대인이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며, 더 나아가 유대인의 상업 활동도 제약시켰다.⁷⁾

이슬람이 지배하던 시절 스페인에 정착했던 유대인들은 한동안 아랍인과 협력하면서 평화롭게 지냈다. 하지만 스페인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유대인은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 당했고, 개종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무참히 학살당했다. 1390년에는 세비아(Seville)를 중심으로 유대인 학살이 자행되어 약 1만 명의 유대인이 희생당했다.⁸⁾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박해가 심화되면서 유럽에서 유대인 추방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스페인에서는 1492년 약 15만 명의 유대인들이 추방당했으며, 영국에서는 1290년에, 프랑스에서는 1306년, 1323년, 1394년에, 독일에서는 페스트 이후, 포르투갈에서는 1496년, 체노바에서는 1550년, 프로방스에서는 1512년, 1569년에는 대부분의 교황 영지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되었다.⁹⁾ 이들 국가에서 추방당한 유대인은 폴란드나 터키로 도피하였다.

7) 김차규, “유스티니아누스 통치 시기 유대인 박해”, 『서양중세사연구』 40(2017), 50쪽. 막스 디몬트, 『세계 최강성공집단 유대인』 (서울: 동서문화사, 2002), 67쪽.

8) 박종욱, 「반유대주의 운동과 스페인 근대 종교재판소에 있어서 거짓 개종 유대인 문제」, 『이베로아메리카』 10/2 (2008. 12), 166쪽.

9) 막스 디몬트, 『세계 최강성공집단 유대인』, 209쪽.

2) 십자군전쟁과 유대인 박해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자 유대인들은 희생양이 되었다. 제1차 십자군 원정 당시 십자군은 개종을 거부한 유대인 천여 명을 학살했고, 예루살렘을 향한 진군 중에 마그데부르크, 멧츠, 스트라스부르크, 플랑드르, 보름스 등지에서 유대인을 이교도 혹은 예수의 살해자라는 누명을 씌워 학살하였다.¹⁰⁾ 라인강 근처(Rhineland)를 지나던 십자군들은 유대인 마을을 약탈하고 회당을 불태웠는데, 이때 약 3천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다.¹¹⁾

십자군은 무슬림을 치러 가기 전, 반기독교 세력인 유대인들을 먼저 치는 게 낫다는 그럴듯한 변명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했다. 또한 십자군이 1099년 예루살렘을 탈환한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유대인에게 이슬람교도와 내통했다는 누명을 씌워 학살하거나 노예로 잡아 유럽으로 팔아넘긴 것이었다.¹²⁾ 십자군 전쟁의 명분은 이슬람화된 성지 예루살렘의 회복과 기독교의 부흥이었지만 이러한 약탈과 학살로 인해 대의명분은 변질되었고, 무고한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했다.

3) 흑사병을 둘러싼 음모론

중세 유럽에서 페스트가 창궐하자 유대인들이 음모의 희생양이 되었다. 1347년에 발생한 흑사병으로 인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이때 유대인들이 우물이나 샘의 근원에 독을 탔다는 소문이 퍼졌고, 흑사병으로 인한 비극과 고통에 대한 책임이 유대인에게로 돌려졌

10) 로버트 S. 위스트리치, 송충기 옮김, 『히틀러와 홀로코스트』, (서울: 을유문화사, 2011), 34쪽.

11) Pamela C. Berger, "The roots of anti-semitism in medieval visual imagery: an overview," *Religion and the Arts*, 4 no 1 2000, 14쪽.

12) 박재선,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 파워』 (서울: 해누리, 2010), 218쪽.

다.¹³⁾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 모든 혐의를 전가시켜 자신들의 분노와 적개심을 표출했다.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기 전 몽골과 이슬람 제국을 휩쓸었으나 그들은 이를 유대인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유럽 문화 곳곳에 뿌리 깊게 내려 온 유대인에 대한 반감은 유대인을 악마로 간주하고 유대인을 희생제물로 삼았다.

4) 포그롬

포그롬은 ‘학살하다, 파괴하다’를 뜻하는 러시아어 동사(громить)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살해나 폭력, 재산 파괴 및 방화를 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가해진 폭력행위를 의미한다.¹⁴⁾ 포그롬은 유대인들을 비인간화시키는 엄격한 법과 규정들, 그리고 유대인과 러시아인 사이에 형성된 사회경제적 갈등과 긴장, 그리고 종교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등으로 인해 촉발되었다.

1772년부터 1795년까지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하였다. 이로 인해 유대인과 관련된 직업과 거주지 그리고 권리를 제한하는 법과 규정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약 600개가 넘는 유대인 관련 법령들은 유대인들을 열등하고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버릴 만큼 엄격하고 제한적인 조치들이었다. 그런데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당하자 그 모든 혐의가 유대인에게 씌워져 포그롬의 도화선이 되었다.

유대인이 황제를 암살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었고, 유대인들을

13) 윤노 히로시, 이동철 옮김, 『음모의 네트워크』 (서울: 북하우스, 2009), 56. 1353년에 그려진 그림에는 유대인들이 동굴에 던져져 불에 타 죽는 장면이 묘사되었다. Pamela C. Berger, “The Roots of Anti-Semitism in Medieval Visual Imagery: An Overview”, 33쪽.

14) 최아영, 「러시아 제국의 반유대주의 : 1880년대 초 남부 지역 포그롬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23 (2012. 5), 175쪽.

대상으로 분노와 적개심이 표출되었다. 이로 인해 1881년 4월부터 12월 까지 약 200여 건 이상의 포그롬이 발생하여 약 10만 명의 유대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¹⁵⁾ 분노한 폭도들은 유대인들의 집과 상점뿐 아니라 회당까지 습격하였고, 그들이 소중하게 간직해 오던 토라(모세오경)까지 불살라버렸다.

1881년부터 1921년까지 약 40년간에 걸친 포그롬으로 약 천여 건의 유대인 학살이 자행되었다.¹⁶⁾ 유대인 300만 명은 박해를 피하여 미국, 서유럽, 팔레스타인 등으로 이민하였다. 일부 과격 성향의 유대인들은 볼셰비키에 가담하여 러시아 공산혁명을 주도하였다.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자 유대인들은 해방을 기대했지만 이는 오히려 재앙이 되었다. 1918년부터 1921년 사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1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핍박을 받아 생명을 잃었다.¹⁷⁾

5) 홀로코스트

나치에 의해 자행된 홀로코스트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 아래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가장 사악하고 야만적이었다. 홀로코스트는 유대인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정서적 반감에서 출발하여 이데올로기를 통해 정식화되었고, 급기야는 유대인 전체를 완전히 몰살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인간의 폭력성, 배타성, 광기(狂氣)의 극단적인 면을 보여 주었다.

나치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와 경제적 침체로 극심한 혼란과 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질적인 유대인의 존재는 독일의 내부적 통일을 가로막는 요소로 인식되었다. 나치는 이 모든 외부적인 위협과

15) 같은 책, 188쪽.

16) 박제선,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 파워』, 219-220쪽.

17) 로버트 S. 위스트리치, 『히틀러와 홀로코스트』, 45쪽.

내부적인 혼란의 책임을 유대인에게 전가시켜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다.

홀로코스트는 소련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나치는 점령지였던 발트해 연안국에 살던 유대인들을 최초의 희생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유대인을 집중적으로 학살할 절멸수용소(絶滅收容所, Vernichtungslager)가 세워지면서 독가스 살해가 시행되었다. 그 결과 폴란드 바르샤바(Warschau) 유대인 게토에 거주했던 25만 명의 유대인 중 90% 이상이 희생되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약 300만 명 이상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250만 명이 독가스로 살해되었고, 50만 명은 굶어 죽거나 질병으로 희생당했다.¹⁸⁾

수용소에 들어올 때부터 노동력이 없는 병자와 노약자는 곧바로 죽음의 가스실로 보내졌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따로 분류되어 강제노역을 하면서 죽음의 공포 속에 살다가 결국 살인공장에서 한 줌의 재료 변했다. 유대인 학살은 1941년 6월을 기점으로 약 4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그 희생자의 수만 해도 유럽 유대인의 3분의 1가량인 600만 명에 달했다. 유대인 학살은 독일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등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 걸쳐 자행되었으며, 일부 서유럽 국가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당했다.

3. 반유대주의 비판

위의 사건들에서 보듯이 유대인들이 희생양이 되었던 원인은 초대 교부시대부터 중세 유럽인들의 의식 속에 보편적 정서로 자리 잡게 된 반(反)유대주의적 정서 때문이었다. 반유대주의적 정서는 종교적 측면,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맞물려 형성되었다.

18) 김기련, 「히틀러의 유대인 정책과 고백교회의 투쟁」, 『신학사상』 169(2015. 여름), 155쪽.

1) 종교적 측면

종교적 측면에서 반유대주의는 초대 교부들의 배타적인 가르침과 민간에 떠돌던 비이성적인 미신이 맞물린 결과였다.

① 초대 교부들의 가르침

초대 교부들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모함하고 경멸한 자들, 신앙의 적 대자, 악마의 수호자로 묘사하며 비난했다. 2세기의 오리게네스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흉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징벌과 재앙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았으며, 4세기의 암브로시우스는 유대인의 회당에 불을 지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설교하였다.¹⁹⁾ 또한 크리소스톰은 유대인들은 탐욕스러우며, 그들의 회당은 들짐승들의 거처이고 악마와 마귀의 요새라고 언급했다.²⁰⁾ 이러한 편견은 유대인을 인간이 아니라 악마의 모습으로 묘사한 중세의 그림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이토록 미워하고 혐오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었다는 것과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독설로 가득 찬 교부들의 가르침은 너무나 배타적이다. 교부들이 보기에 유대인은 사랑받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은 아니었다. 이처럼 종교적 신념이 독선적이고 배타적으로 치우칠 때 사랑 보다는 미움이 앞서고, 타인을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멸망 받아야 마땅한 존재로 보는 편향된 시각이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교부들의 왜곡과 편견이 대중들의 의식 속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유대인 박해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19) 류모세, 『유대인 바로보기』(서울: 두란노, 2010), 70쪽.

20) Pamela C. Berger, "The Roots of Anti-Semitism in Medieval Visual Imagery: An Overview", 7-8쪽.

② 비이성적인 미신에 근거한 혐의

유대인에 대한 반감과 혐오는 의식살인혐의를 통해 널리 확산되었다. 이 혐의는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남자아이를 살해한 후 그 피를 유월절 마초(matzot)에 찍어 먹는다는 소문으로 시작되었다. 1144년 영국 노리치(Norwich) 마을에서 윌리엄(William)이라는 아이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수도승이었던 먼머스의 토마스(Thomas of Monmouth)는 유대인들이 아이를 유인하여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주장하였다.²¹⁾

이 혐의로 붙잡힌 유대인이 혹독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유월절 피의 제사를 위해 아이를 살해했다고 거짓 자백을 했는데, 이후 2세기 동안 의식살인 혐의는 유럽 대륙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²²⁾ 그리하여 부활절 전후로 어린이가 사라지면 유대인들에게 혐의를 씌워 박해하였다. 1475년 이탈리아의 트렌토(Trento)에서 시몬(Simon)이라는 소년이 살해당하자, 도시의 유력가들은 유대인들에게 의식살인혐의를 씌워 몰살시키는 사건도 있었다.²³⁾

유대인에 대한 혐의는 유대인들이 성찬식 성체(빵)를 훔쳐 바늘로 수없이 찢어 마치 피가 난 것처럼 만들어 성찬식을 모독한다는 유언비어로 퍼져나가기도 했다. 여기에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몸에 고통을 가하려는 악의를 품고 성체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덧붙였는데, 성체 위의 ‘붉은’ 얼룩이 그 증거라고 주장하였다.²⁴⁾

21) Peter M. Marendy, “Anti-Semitism, Christianity, and the Catholic Church: Origins, Consequences, and Réponses,” *Journal of Church and State*, 47 no 2 Spr 2005, 299-300쪽.

22) 로버트 S. 위스트리치, 『히틀러와 홀로코스트』, 34-35쪽.

23) 임병철, 「유대인과 의식살해 -15세기 후반 이탈리아의 사례」, 『인문과학』 63 (2016. 11), 105쪽.

24) 서정일, 「독일 반유대주의 역사의 사회문화사적 이해 - 중세에서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까지」, 『뫼히너와 현대문학』 18(2002. 5), 333쪽.

이러한 혐의를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형태로 박해가 가해졌다. 첫째, 유대교 회당에 불을 지른 후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 둘째, 유대인에게 모든 빚을 전가시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신앙의 터전을 잃었다. 그런데 성체 위에 생긴 붉은 얼룩은 음식물 위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다.

이처럼 의식살인혐의나 성체모독혐의는 모두 근거 없는 소문에서 비롯된 비이성적인 미신에 가까웠다. 무지와 낭설에 근거한 악의적인 모략은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혐의를 쓰고 폭력의 희생양이 된 유대인에게는 너무나 억울하고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었다.

2) 경제적 측면

중세 유럽에서 반유대주의 사상이 팽배했던 원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대인들은 언어적 소통능력과 뛰어난 사업수완으로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유대인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는 전쟁을 담당했던 귀족기사단과 종교를 담당했던 성직자, 그리고 노동을 담당했던 농노 등의 세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들 계층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하면서 상업이나 금융업을 담당하는 계층이 없었기에 경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당시 봉건적인 경제제도의 취약점을 인식한 왕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대인들을 유입시켜 경제 부흥을 도모하려 했다. 왕은 유대인들에게 정착지를 제공하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유대인들은 그에 따른 상당한 보호세를 냈다. 유대인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왕권과 영주권

의 보호를 받으며 유럽에 흩어져 있는 동족들과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면서 경제적 주도권을 장악해 갔다.

하지만 왕과 영주들의 보호 아래 있던 일부 유대인에 대한 반감은 전체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확산되었다. 토지 소유가 금지되었던 유대인들은 특정지역에 모여 살면서 상업이나 금융업으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고리대금을 통해 폭리와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중세교회는 물건을 매매하는 상업행위를 죄와 밀접하게 여기고, 돈을 악마처럼 탐욕으로 타락시키는 것으로 생각했다.²⁵⁾ 또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금업은 땀을 흘리지 않는 직업으로 간주하여 금지시켰다. 이자는 시간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인 만큼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께 귀속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로마 교황청이 대금업을 ‘지옥에 영혼을 파는 것’으로 여겨 이를 공식적으로 금지시키는 1179년의 교서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이처럼 교리적으로 금지되고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고리대금업을 유대인들이 맡게 되자 유대인들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은 세금으로 세속 군주들에게 흘러들어갔다. 군주들은 고리대금업의 공동수익자였지만, 도덕적 비난과 미움의 화살은 오직 유대인에게로 향했다.

세속 영주와 기사들은 군자금과 관직 취득을 위해 막대한 현금이 필요했으며,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신용 대부가 더욱 절실했다. 그리하여 대금업을 통해 생계활동을 하던 유대인에게는 부를 축적하는 기회가 되면서도 동시에 불행으로 작용하였다. 교회에서는 대금업을 죄악시켰지만 일상에서는 원활한 자본 흐름을 위해서 필요악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일을 유대인이 대신 떠맡은 셈이었다.

25) Pamela C. Berger, “The roots of anti-semitism in medieval visual imagery: an overview”, 11쪽.

1215년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소집한 4차 교황청 공의회에서는 금전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자를 취하는 유대인과의 접촉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²⁶⁾ 또한 15세기 프란체스코의 탁발수도사들은 이자대부업이 고결한 청빈 정신과 역행하기 때문에 유대인과 연결시켜 “흡혈귀(blood-sucker)”로 비유하면서 비판하였다.²⁷⁾ 그리고 19세기 초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유대인들은 은행가이면서 자본주의와 동일시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유대인=은행가=자본주의’의 등식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빈곤을 유대인과 자본주의의 탓으로 돌렸다.²⁸⁾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자라는 혐의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실제로 그들이 상업이나 금융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제약 때문이었다. 유대인에게는 토지 소유가 허락되지 않았고,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원천적으로 차단되었기에 상업이나 고리대금업은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이 기피하고 멸시하는 고리대금업에 종사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비난은 그러한 직종에 종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직업 환경으로 내몰았던 비도덕적인 법과 제도에 가해져야 마땅하다.

3) 문화적 측면

유대인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도 동화되지 않은 채 자신들만의 종교와 문화를 배타적으로 유지하며 그들만의 생활방식을 고집했다.

26) 프란시스코 데 케베도(Francisco de Quevedo)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은 다 빨아먹는 ‘거머리’로 지칭하였다. 서정일, “독일 반유대주의 역사의 사회문화사적 이해 - 중세에서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까지”, 332쪽.

27) 이은해, “바로크 시대 반유대주의의 입장에 대한 고찰: 케베도의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2013. 8), 290쪽.

28) 문지영, 「19세기 프랑스 유대인의 집단표상과 좌파 반유대주의」, 『프랑스사 연구』 28(2013. 2), 159쪽.

유일신 신앙과 안식일 준수, 까다로운 음식 문화, 타민족과의 결혼금지 등과 같은 독특한 생활방식은 사람들의 편견과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다수의 외집단에 속하지 않은 채 주변부에 머물면서도 자신들만의 생활방식을 고집하는 소수 내집단의 배타적 태도와 생활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수에 의한 배타적 태도와 혐오를 고착화시키는 외부 환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에게는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이노센트 3세가 소집한 1215년 라테란 공의회에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인 표지를 착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노란 배지를 달고 정해진 옷만 입어야 했으며, 나중에는 계토로 격리 수용되어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유대인에 대한 반감과 혐오는 특정 시기나 특정 집단에서 갑자기 나타났던 현상이 아니라 오랜 동안 유럽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대중적 심리 현상이었다. 유대인들을 음탕하며 돈만 아는 부패한 자들로 낙인찍는 정서적 반감은 거대담론으로 확장되면서 하나의 문화코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세기 들어서는 종래의 비이성적인 미신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유대인 혐오가 존재했다.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는 집권초기 ‘유용한’ 유대인과 ‘해로운’ 유대인을 나누어 국가 발전을 위해 유용한 유대인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일부 유대인들에게 특혜를 주기도 했다.²⁹⁾ 하지만 얼마 후 알렉산드르 2세는 유대인들을 반 차르주의자로 몰아 집단 처형하거나 시베리아로 강제유형을 보냈다. 독일인들도 ‘선량한’ 유대인과 ‘악한’ 유대인을 구분하면서, 자신들은 악한 유대인을 미워하고 징벌

29) 당시 하스칼라(חַסְכָּלָה, חֲסִידוּת) 운동을 이끌던 유대 지도자들은 초창기 알렉산드르 2세의 지지 세력이 되었다. ‘하스칼라’는 ‘계몽’을 뜻하는 히브리어로 18세기 말 독일계 유대인 모세스 멘델손(Moses Mendelssohn)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사회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다는 자기암시를 부여하였다. 그들이 보기에 악한 유대인들은 공동체의 독버섯, 기생충,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였고, 문명을 파괴하고 도덕을 타락시키는 사악한 존재로 여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치는 모든 유대인에게 악마의 형상을 씌우고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존재로 간주하였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열등하고 백해무익한 인종이며, 아무리 개선시키려고 노력해도 그 천성적인 열등성과 해악성이 개선되지 않기에, 우수한 아리안족의 독일 혈통에 이러한 해악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나치의 주장은 우생학적 인종주의와 생물학적 결정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선한’ 유대인과 ‘악한’ 유대인에 대한 구분은 개인에 따라 매우 주관적이며 판단기준 또한 모호할 수밖에 없다. 가해자들은 ‘선량함’과 ‘악함’, ‘오염’과 ‘순수’라는 상반된 개념을 통해 유대인 집단 전체를 점차 주변화시키고 계토로 몰아넣으려 했다. 급기야는 모든 유대인들을 살 가치조차 전혀 없는 인간 이하의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 자신들의 차별과 배제, 그리고 잔혹한 몰살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면죄부를 부여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선과 악의 구분은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자기합리화 내지 자기체면에 지나지 않는다.

4. 반유대주의 넘어서기

1) 이데올로기의 환상 해체하기

반유대주의는 유대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반감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보편적인 정서로 자리 잡으면서 형성되었다. 하지만 이는 유대인에 대한 비이성적인 편견에서 비롯되었거나,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도식으로 형성된 이데올로기적 환상이다. 슬라보예 지젝은 반유대주의가 형성되었

던 과정을 분석하면서 이데올로기를 하나의 허구나 환상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데올로기의 핵심을 누빔점으로 보았다. 마치 떠도는 기표들이 매듭으로 인해 통일되게 구축되듯이, 누빔을 통해 자유롭게 떠도는 이데올로기의 요소들이 하나의 구조화된 이미지의 틀로 고정된다는 것이다.³⁰⁾ 이는 마치 이불이 누빔을 통해 형클어지지 않고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면서 고정되듯이, 이데올로기의 여러 요소들도 누빔을 통해 구조화된 네트워크의 일부로 고정된다는 것이다.

실례로 전체화 과정을 통해 유대인은 ‘탐욕’이나 ‘타락’, ‘음모’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고정되어 버린다. 이때 유대인 한 개인의 개성적인 측면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록 어떤 사람이 유대인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그의 인격적인 면모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더라도 그러한 관계 맺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미 유대인은 탐욕이나 타락, 음모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찍힌 부류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나 폄하는 객관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이미 고정되어 버렸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젝은 이런 현상을 “코드화된 메시지, 암호, 사회적 적대의 왜곡된 표상”으로 보면서 이데올로기화된 환상을 비판한다.

지젝은 유대인의 이미지 속에 투사된 상징의 문제점을 전치와 응축을 통해 해명할 것을 강조하였다.³¹⁾ 지젝은 먼저 전치의 사례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주된 갈등은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여기에 반유대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개입되면 계급 갈등의 구조는 전치되면서 건강한 자본주의 경제조직과 이를 부패시키는 유대인 사이의 갈등으로 전환되어 버린다고 해석한다. 그리하여 모든 부패의 근본원인은 유대인에게로 돌려지는데, 이러한 전치현상은 고리대금업을 유대인과 연

30) 슬라보예 지젝, 이수련 옮김,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고양: 인간사랑, 2002), 155쪽.

31) 같은 책, 218-219쪽.

결시키면 더욱 심화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지젝은 응축에 대한 실례로, 유대인은 “더러우면서도 지적이고, 음탕하면서도 무기력하다”는 고정관념을 예로 든다. 유대인에 대한 이미지를 경제적 착취자 또는 정치적 음모가나 부패한 반기독교적인 불순세력 등과 같은 부정적이고 왜곡된 이미지들로 응축시켜 유대인을 모든 악과 부패의 근원으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트라이치케(Heinrich von Treitschke)는 19세기 후반 발생한 경제위기의 책임을 유대인에게 전가시켰다.³²⁾ 그는 유대인의 해악성과 이질성을 강조하면서 유대인은 고리대금으로 착취하는 악덕 금융업자이며 언론을 장악한 음모로 가득 찬 민족이라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 없이 반유대주의적 편견에 기초한 유대인 혐오를 표출하였을 뿐이었다.

지젝은 이러한 전치와 응축의 과정을 통해 반유대주의가 이데올로기로 정립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왜곡된 이미지의 근본문제를 지적한다. 지젝은 또한 이데올로기가 환상 속에 구축되어 산출되는 방식을 밝힘으로 이를 해체시킨다. 지젝에 따르면, 환상이란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불가능성의 빈 공간을 메우는 시나리오, 공백을 감추는 스크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상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환상 뒤에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체험하는 일이 중요하다.³³⁾ 이데올로기의 환상은 마치 무대 뒤의 빈공간을 감추는 스크린처럼 있지도 않는 가상의 이야기를 은폐하는 수단이 되는데, 이를 체험하여 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대인에 대한 정서적 반감 내지 혐오감,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은 유대인을 건전한 사회조직을 부패시키는 ‘이질적인 신체’,

32) 윤용선, 「나치집권 이전 교양시민계층의 반유대주의 - ‘베를린 반유대주의논쟁’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6(2005. 2), 148쪽.

33) 김하임, 「프로이트와 지젝의 반유대주의-인종주의-인식과 그 극복 방안」, 『독어교육』 45(2009. 9), 299쪽.

또는 ‘외부적인 요소’로 보았기 때문이다. 유대인을 건강한 사회구조를 무질서하게 교란시키고 부패시키는 외부의 침입자로 간주하는데, 이러한 사고 속에는 만일 유대인을 제거하기만 하면 사회는 질서와 안정, 동일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처럼 유대인을 혼돈과 타락을 부추기는 위협인자로 보는 것은 거짓된 환상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이며, 어느 집단이나 공동체에나 존재하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이다. 제일 조선인으로서 늘 ‘외부’에 머물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내부’ 사람들과 만나지 못했다고 고백한 서경식은 디아스포라로서의 자기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³⁴⁾

디아스포라들은 이주한 땅에서도 언제나 이방인이며 소수자이다. 다수자는 대부분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토지·언어·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견고한 관념에 안주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 안에 있는 한 다수자들에게는 소수자의 진정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그 진정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고정되고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대상도 그것을 보는 편이 불안정하게 움직일 때는 달리 보인다. 다수자들이 고정되고 안정적이라고 믿는 사물이나 관념이 소수자의 눈에 는 실제로는 유동적이며 불안정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공동체나 불완전한 요소는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로 온전히 통합된 사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이다. 진정한 환상 횡단하기란 서로 간의 불완전한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가운데 나와 다른 타자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따라서 공동체 주변을 맴도는 타자를 거부하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데올로기의 허구와 환상을 해체하고 극복하는 방식이 된다.

34) 서경식, 김혜신 옮김, 『디아스포라 기행 - 추방당한 자의 시선』 (과주: 돌베개, 2006), 15쪽.

2)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중세의 흑사병과 십자군에 의한 약탈과 살상, 포그롬과 홀로코스트와 같은 집단 대학살은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만든 비극의 역사였다. 특히 홀로코스트는 유럽 전역에 걸쳐 진행되었기에 그 피해는 막대했다. 홀로코스트가 막 시작되던 1930년대 후반 만약 유럽 국가들이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치하거나 즉각적으로 대처했다라면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나치의 유대인 말살정책에 무관심하거나 방관적인 태도로 침묵했다. 영국과 미국은 홀로코스트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유대인들을 구출하기를 주저하였다. 미국은 이미 1930년대에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 밀려오는 유대인들의 대량 이민을 막기 위해 할당제를 도입하였으며, 영국 또한 유대인들의 대량 입국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자국 이기주의적인 조치들은 유대인들의 도피경로를 차단시켜 더 큰 피해를 초래하였다.

또한 일부 국가들의 반유대적인 정책은 나치에 협력하는 결과를 빚었다. 프랑스의 비시 정부는 1940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여러 칙령과 입법을 통해 유대인들을 특별수용소에 수감시키도록 하였다.³⁵⁾ 그리하여 1940년 9월에 약 5만 명의 유대인이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1941년 2월에는 비점령지구의 수용소에 약 4만 명이 수용되었다.³⁶⁾ 수용소의 환경은 매우 열악하였는데, 나치의 유대인 말살이 시작되기도 전에 약 3,000명이 기아, 이질, 장티푸스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

비시 정부에 의한 유대인에 대한 법적 차별과 경제적 박탈, 수용소의

35) 이에 대해서는 신행선, 「프랑스의 반유대주의 정서와 비시정부의 반유대정책」, 『역사학연구』 55 (2014. 8), 193-221쪽을 참고하십시오.

36) 이용우, 「반유대주의와 국가적 협력 - 독일 강점기 프랑스의 유대인 박해, 1940-1944」, 『서양사론』 101 (2009. 6), 138쪽.

설치, 유대인에 대한 인구조사,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유대인 대량검거 등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없었더라면 그냥 단순한 박해 정도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시작되자 비시 정부의 유대인 관련 조치들은 거대한 학살기계의 톱니바퀴가 되어 유대인 학살에 이용되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한창일 때, 폴란드의 유대인 랍비였던 바이스만 텔은 로마 교황청에 ‘무고한 유대인들 가운데 어린이들이라도 구해 달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이 세상에 무고한 유대인 어린이의 피라는 것은 없다. 모든 유대인의 피는 죄악되기에 죽어야 마땅하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당신들이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다”라는 매몰찬 답변을 듣게 되었다.³⁷⁾

타인의 고통에 대한 냉담이나 무관심은 이처럼 인간을 비인간화시킨다. 반유대주의로 인한 폭력과 같은 ‘비인간화의 하향 나선(downward spiral of dehumanization)’을 거꾸로 되돌리는 비결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이다. 인간을 비롯한 포유동물 중에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이해하는 감정 이입 뉴런이라는 거울 신경세포(mirror neuron)가 있다.³⁸⁾ 이는 다른 이가 겪는 상황을 마치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느끼고 경험하게 만드는 뉴런이다. 공감(sympathy)은 타인이 처한 입장에 서서 타인이 경험하는 것을 함께 느끼고,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다.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의 분석에 따르면, 공감에 기반을 둔 이타주의는 남을 착취하려는 성향도 억제한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공감은 자멸적 착취와 값비싼 보복까지도 누그러뜨리는 힘이 있다고 하였다.³⁹⁾ 이처럼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은 냉담이나 무관심의 장

37) 류모세, 『유대인 바로보기』, 13-14쪽.

38) 제러미 리프킨, 이경남 옮김, 『공감의 시대』 (서울: 민음사, 2010), 102쪽.

39) Steven Pinker, *The Better Angels of Our Nature* (New York: Penguin Books,

벽을 무너뜨리는 힘이 된다. 나아가 약자들이 처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그들의 겪고 있는 사회적 고통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계기를 제공한다.

3) 타자에 대한 책임

유대인으로서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던 임마누엘 레비나스는 전체주의적 폭력이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를 기초로 타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다. 그에게 있어 타자에 대한 책임은 주체성의 본질적이고 으뜸가는 근본적 구조였다.⁴⁰⁾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을 환원할 수 없는 타자로 표현하면서 윤리적 명령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보았다. 타자의 얼굴은 매우 특별한 위치를 갖는데, 타자는 나에게 얼굴로 드러나며 나와 타자가 맺는 책임의 관계 한 가운데 타자의 얼굴이 있다는 것이다. 타자는 모든 것이 박탈된 채 궁핍한 얼굴, 고통 받는 얼굴로 나에게 현현한다고 보았다.⁴¹⁾

레비나스는 얼굴이 바로 타자의 별거벗음이라고 보았다. 얼굴은 헐벗은 채로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⁴²⁾ 별거벗었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가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어떤 것에 의해서도 고정되거나 규정되지 않은 채 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별거벗음이야말로 얼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얼굴은 무방비한 상태로 드러나지만, 동시에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지닌 것으로, 곧 무한과 초월로 드러난다. 이러한 타자의 얼굴은 우리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2012), 585쪽.

40) 미카엘 드 생 쉘롱, 『엠마누엘 레비나스와의 대담』 (서울: 동문선, 2008), 66쪽.

41) 엠마누엘 레비나스, 서동욱 옮김,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울: 민음사, 2003), 216쪽.

42) 엠마누엘 레비나스, 양명수 옮김, 『윤리와 무한- 필립 네모와의 대화』 (서울: 다산글방, 2000), 110쪽.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⁴³⁾

레비나스는 얼굴에서 힘의 논리를 발견하고 이 얼굴을 통해서 어떻게 힘의 논리가 극복되는지를 역설한다. 타자의 별거벗은 얼굴은 항상 죽음의 가능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타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은 그의 얼굴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살해의 가능성을 막는 것 역시 얼굴이다. 얼굴은 아무런 힘도 없이 “죽이지 말라”고 호소한다. 죽이지 말라고 호소하는 타자의 얼굴은 절대적이다. 엄청난 파괴의 힘에 대항하여 얼굴은 호소하면서 나에게 명령한다.

레비나스가 강조하는 타자를 위한 책임은 타자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타자에게 노출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이해타산을 버리는 것이며, 타자를 위해 스스로 고통에 사로잡히는 것이다.⁴⁴⁾ 따라서 고통 받는 타자의 얼굴과의 만남은 나의 존재에 내포된 코나투스(존재 안에 머무르려는 경향)를 더 이상 본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만든다.⁴⁵⁾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이 우리에게 윤리적인 명령을 내리고, 우리는 타자에 대한 책임을 통해 온전한 주체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힘이 없는 저항, 얼굴의 호소야말로 반유대주의나 홀로코스트와 같은 죽음과 파괴의 힘에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다. 타자의 얼굴은 초월적인 절대성을 가지고 그 자신을 드러낸다. 때로는 고아의 얼굴로, 때로는 버려진 이의 얼굴로 나타난다. 우리는 “죽이지 말라”고 호소하고 명령하는 얼굴을 통해 타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발견하게 된다.

43)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서울: 문예출판사, 2001), 137쪽.

44) 엠마누엘 레비나스, 김연숙·박한표 옮김, 『존재와 다르게』, 고양: 인간사랑, 2010), 111쪽.

45) 엠마누엘 레비나스, 『존재에서 존재자로』, 218쪽.

5. 호모 사케르와 환대의 윤리

1) 호모 사케르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공동체에서 차별받고 배제된 존재라는 점에서 호모 사케르(homo sacer)라 할 수 있다. 호모 사케르는 ‘벌거벗은 생명’이라는 의미로, 사회적으로 무화된 존재가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모습을 드러낸다.⁴⁶⁾ 조르주 아감벤은 서양 정치를 벌거벗은 생명 대 정치적 존재, 배제 대 포함의 도식으로 보면서, 정치는 벌거벗은 생명을 분리해내는 것으로 보았다.⁴⁷⁾ 아감벤은 조에(zoé)와 비오스(bíos)를 구분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에 착안해서 조에가 모든 생명체에 공통된 단순하게 생존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비오스는 공동체 내에서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정치적 삶이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조에의 영역에 있으면서도 비오스의 영역에 예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존재를 ‘호모 사케르’ 또는 ‘벌거벗은 생명(bare life)’이라 불렀다. 즉 호모 사케르는 절대적인 살해 가능성에 노출된 생명을 가리키는데, 공동체의 법적, 종교적 질서로부터 추방된 자를 의미한다.

호모 사케르가 지니는 독특한 특징은 그가 사로잡혀 있는 이중적 배제와 그가 노출되어 있는 폭력의 특수한 성격이다.⁴⁸⁾ 호모 사케르는 이중적 배제로 인해 공동체 내에서 어떤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언제든 잔혹한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위태로운 존재들이다. 유대인들은 비이성적 미신과 독단으로 가득 찬 종교적 도그마와 억압적 이데올로기의

46) 이종원, 「신화와 종교 속에서의 폭력」, 『신학과 실천』 48(2016/2), 645쪽.

47) 조르주 아감벤,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서울: 새물결출판사, 2008), 45쪽.

48) 같은 책, 175쪽.

희생양이 되어 이중적 배제와 폭력에 노출된 호모 사케르로서 비참한 삶을 살았다.

2) 팔레스타인 난민

오늘날 유대인들은 더 이상 호모 사케르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스라엘의 건국과 더불어 억압받는 약자에서 군림하는 강자로 그 위치가 바뀌었다. 현대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수난사라고 할 수 있으며, 현 시대의 호모 사케르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을 자신들의 정착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국제적 동정심을 얻었고, 기존에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던 원주민에 대한 비인도적 폭력은 가려지거나 정당화되었다.⁴⁹⁾

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열세에 놓인 영국은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의 도움을 끌어내기 위해 이중계약을 맺었다. 아랍인들에게는 아랍국가 독립을 약속하며 오스만제국과 싸워줄 것을 요청했고, 유대인들에게는 미국을 움직여 대규모의 전쟁 물자 지원을 끌어냈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자 영국은 양쪽에 한 약속을 모두 어기고 1916년에 프랑스와 비밀리에 맺었던 사이크스-피코 협정(Sykes-Picot Agreement)에 따라 팔레스타인을 자신들의 위임통치지역으로 만들어 버렸다.⁵⁰⁾ 이에 아랍인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영국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UN에 떠넘겨 버렸다.

유엔팔레스타인특별위원회(UN Special Committee on Palestine; UNSCOP)는 1947년 8월 팔레스타인에 아랍인 국가와 유대인 국가를 각각 세우고, 성지인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유엔의 특별관리 아래 두는 권고안을 제

49) 류대영, 「이스라엘 식민주의의 이력」, 『기독교사상』, 2014년 9월, 12쪽.

50) 박현도, 「끝없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 예루살렘 성전산 경찰관 살해 사건을 보면서」, 『가톨릭 평론』 11, 2017년 9월, 67쪽.

출하였다. 이 당시 아랍계가 땅의 87%를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유대인은 6%에 불과했다. 하지만 시온주의자들의 강력한 로비와 서구 여론의 편파적 동정심에 영향을 받은 유엔은 1947년 11월 아랍계 주민에게 42%의 땅을 주고, 유대인에게는 56%의 땅을 주는 분할안을 통과시켰다.⁵¹⁾ 이후 영토분쟁으로 인한 갈등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지게 되었다.

시온주의자들은 군사작전을 감행하면서 UN이 유대인 땅으로 설정한 지역에서 아랍계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내었다. 이렇게 해서 생기기 시작한 것이 팔레스타인 난민(refugee)들이다. 1948년 1차 중동전쟁으로 인해 5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했고, 이후 난민은 꾸준히 늘어나 현재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서안지구, 가자지구,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등지의 수십 개 난민촌에서 살고 있다.

이스라엘은 아랍계 주민들의 피 위에 터전을 건설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4차에 걸친 중동전쟁으로 점령한 땅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일부 과격한 시온주의자들은 정착촌 건설 과정에서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끔찍한 학살행위를 자행하기도 했다. 구쉬에무넴이라는 시온주의 청년단체로 시작된 정착촌 건설 운동은 1976년 3,000여 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정착민 수가 35만 명이 넘는다.⁵²⁾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에는 보복과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000년 9월 팔레스타인인들의 2차 인티파타(민중봉기) 발발 이후 2007년 1월까지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 동예루살렘, 서안 가자 지역에서 5,050명의 팔레스타인이 살해당했고, 7만 여 채의 주택이 파괴되었다.⁵³⁾

51) 류대영, 「이스라엘 식민주의의 이력」, 19쪽.

52) 이강근, 「땅의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기독교사상』. 2012년 10월, 96쪽.

53) 홍미정,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팔레스타인 점령정책: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영토 분쟁의 역사」, 『말』, 2007년 4월, 122쪽.

이스라엘은 2002년부터 서안지구의 경계를 따라 자살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콘크리트로 된 분리장벽(separation wall)을 세우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은 점령지와 이스라엘 내부를 잇는 관통 도로를 건설하면서 팔레스타인의 도시와 마을을 조각내버렸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마을과 도시를 잇는 간선도로들 위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이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호모 사케르로서 겪었던 아픔을 되새긴다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이처럼 무자비하게 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환대의 윤리

관용은 타자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행위이다. 인종이나 종교, 생활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용은 힘의 비대칭성의 기반 위에서 베푸는 자의 시혜에 근거하고 있다.⁵⁴⁾ 관용은 베푸는 자의 마음상태나 의지에 따라 언제나 철회될 수 있기에 불안정하다는 한계가 있다.

환대는 타자에게 자리를 내주는 행위 또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다.⁵⁵⁾ 타자나 주변인은 환대에 의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며 진정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자리, 즉 장소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그런 점에서 환대는 타자를 도덕적 공동체로 초대하는 행위이다.⁵⁶⁾

데리다는 순수하면서도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환대를 주장하였다. 그는 무조건적 환대는 타자중심적이며, 초대(invitation)에 의한 환대가 아니라

54) 최진우 편, 『다양성의 시대, 환대를 말하다』 (서울: 박영사, 2018), 15쪽.

55)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5), 193쪽.

56) 조일준, 『이주하는 인간, 호모 미그란스』 (서울: 푸른역사, 2016), 978쪽.

방문(visitation)에 의한 환대임을 강조하였다.⁵⁷⁾ 진정한 의미의 절대적 환대는 예고 없이 방문한 이방인을 위한 환대, 보답을 기대하지 않으며 그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조건적 환대이다. 데리다는 무조건적 환대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무조건적 환대의 이념은 현실 속에서 환대의 실천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일깨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환대는 이 불가능한 환대의 이상을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스스로를 개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별거벗은 생명으로 이 세상에 왔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한 이들(가족, 공동체, 국가)로부터 받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별거벗은 생명을 위해 무엇을 하든, 그것은 우리가 받은 것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쟁이나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누구나 별거벗은 생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환대를 실천함으로 별거벗은 이들이 이질적인 타자로서 공동체 주변부를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빈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6. 나가는 말 - 공존과 상생의 길 모색하기

위에서 중세의 흑사병과 십자군을 중심으로 유대인에 대한 약탈과 학살, 그리고 근대의 포그롬과 홀로코스트를 중심으로 반유대주의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유대인들이 희생양으로 폄박받았던 이유는 유럽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유대인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나 혐오에서 비롯되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에 대한 비이성적인 미신에 종교적인 편견과 차별이 더해져 유대인을 경멸하거나 혐오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상업이나 고

57) 지오반나 보라도리, 손철성 외 옮김, 『테러시대의 철학-하버마스, 데리다와의 대화』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234쪽.

리대금업에 종사했던 유대인들이 경제적 착취자로 인식되어 도덕적 비난과 혐오를 받게 되었으며, 문화적으로는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대중적 심리현상이었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반유대주의에 내재된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허구로서 코드화된 메시지, 암호, 사회적 적대의 왜곡된 표상이기에 해체되어야 하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은폐하려는 성향이 있기에 이데올로기라는 환상을 횡단함으로써 이를 극복해야 한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냉담이나 무관심은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요소이다. 이러한 비인간화의 하향 나선을 거꾸로 되돌리는 비결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타자의 얼굴이 나에게 명령하는 “죽이지 말라”는 호소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건국 후 유대인들은 홀로스코트의 희생자로서 특혜를 누려왔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향한 무자비한 폭력과 조치들이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호모 사케르로서 겪었던 아픔을 되새긴다면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을 이처럼 무지막지하게 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모두가 상생하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관용을 넘어선 환대가 필요하다. 예고 없이 방문한 이들에게 보답을 기대하지 않으며 심지어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환대를 통해 공동체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공감, 책임, 환대는 분쟁과 갈등과 분쟁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공존과 상생을 증진시키는 위한 도덕적 자질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윤리적 차원을 넘어 사회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법과 제도, 그리고 국제단체와 연대하여 갈등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적극적으로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기련, 「히틀러의 유대인 정책과 고백교회의 투쟁」, 『신학사상』 169, 2015. 여름.
- 김경현, 「로마제국의 이산(diaspora) 유대인」, 『Homo Migrans』 7, 2013, 2.
- 김차규, 「유스티니아누스 통치 시기 유대인 박해」, 『서양중세사연구』 40, 2017, 9.
- 김화임, 「프로이트와 지젝의 반유대주의-인종주의-인식과 그 극복 방안」, 『독어교육』 45, 2009. 9.
-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5.
- 디몬트, 막스. 이희영 옮김, 『세계 최강성공집단 유대인: 불굴의 5000년 지혜』, 서울: 동서문화사, 2002.
- 류대영, 「이스라엘 식민주의의 이력」, 『기독교사상』, 2014. 9.
- 류모세, 『유대인 바로보기』, 서울: 두란노, 2010.
- 레비나스, 임마누엘. 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서울: 문예출판사, 2001.
- 레비나스, 임마누엘. 김연숙·박한표 옮김, 『존재와 다르게』, 고양: 인간사랑, 2010.
- 레비나스, 임마누엘. 서동욱 옮김,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울: 민음사, 2003.
- 레비나스, 임마누엘. 양명수 옮김, 『윤리와 무한- 필립 네모와의 대화』, 서울: 다산글방, 2000.
- 리프킨, 제러미. 이경남 옮김, 『공감의 시대』, 서울: 민음사, 2010.
- 문지영, 「19세기 프랑스 유대인의 집단표상과 좌파 반유대주의」, 『프랑스사연구』 28, 2013. 2.
- 박재선,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 파워』, 서울: 해누리, 2010.
- 박철호, 「그대의 무덤은 도망치는 구름 속에 - 모세스 로젠크란츠와 부코비나 시인들의 유대인 박해 시편」, 『독일어문학』 54, 2011. 9.
- 박종욱, 「반유대주의 운동과 스페인 근대 종교재판소에 있어서 거짓 개종

- 유대인 문제], 『이베로아메리카』 10/2, 2008. 12.
- 박현도, 「끝없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 예루살렘 성전산 경찰관 살해 사건을 보면서」, 『가톨릭 평론』 11, 2017. 9.
- 보라도리, 지오반나. 손철성 외 옮김, 『테러시대의 철학-하버마스, 데리다와의 대화』,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 서경식, 김혜신 역, 『디아스포라 기행 - 추방당한 자의 시선』, 파주: 돌베개, 2006.
- 서정일, 「독일 반유대주의 역사의 사회문화사적 이해 - 중세에서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까지」, 『뫼히너와 현대문학』 18, 2002. 5.
- 생 웨롱, 미카엘 드. 김응권 옮김, 『엠마누엘 레비나스와의 대담』, 서울: 동문선, 2008.
- 신행선, 프랑스의 반유대주의 정서와 비시정부의 반유대정책], 『역사학연구』 55, 2014. 8.
- 아감벤, 조르조,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서울: 새물결, 2008.
- 위스트리치, 로버트 S. 송충기 옮김, 『히틀러와 홀로코스트』, 서울: 을유문화사, 2011.
- 윤용선, 「나치집권 이전 교양시민계층의 반유대주의 - ‘베를린 반유대주의논쟁’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6, 2005. 2.
- 이강근, 「땅의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기독교사상』. 2012. 10.
- 이용우, 「반유대주의와 국가적 협력 - 독일 강점기 프랑스의 유대인 박해 1940-1944-」, 『서양사론』 101(2009), 125-156.
- 이은혜, 「바로크 시대 반유대주의 입장에 대한 고찰: 케베도의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51, 2013. 8.
- 이종원, 「희생양 메커니즘과 폭력의 윤리적 문제」, 『철학탐구』 40, 2015. 11.
- 이종원, 「신화와 종교 속에서의 폭력」, 『신학과 실천』 48, 2016. 2.

- 임병철, 「유대인과 의식살해 -15세기 후반 이탈리아의 사례」, 『인문과학』 63, 2016. 11.
- 조일준, 『이주하는 인간, 호모 미그란스』, 서울: 푸른역사, 2016.
- 지젝, 슬라보예. 이수련 옮김,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고양: 인간사랑, 2002.
- 최아영, 「러시아 제국의 반유대주의 : 1880년대 초 남부 지역 포그롬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23, 2012. 5.
- 최진우 편, 『다양성의 시대, 환대를 말하다』, 서울: 박영사, 2018.
- 최창모, 「이스라엘과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관계 분석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10/2, 2016. 12.
- 홍미정,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팔레스타인 점령정책: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영토분쟁의 역사」, 『말』, 2007. 4.
- 히로시, 운노. 이동철 옮김, 『음모의 네트워크』, 서울: 북하우스, 2009.
- Berger, Pamela C. “The roots of anti-semitism in medieval visual imagery: an overview.” *Religion and the Arts* 4 no 1 2000, 4-42.
- Daniel, Jerry L. “Anti-Semitism in the Hellenistic-Roman period.”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8 no 1 Mar 1979.
- Gruen, Erich S. *Diaspora: Jews amidst Greeks and Romans*.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 Marendy, Peter M. “Anti-Semitism, Christianity, and the Catholic Church: Origins, Consequences, and Réponses.” *Journal of Church and State* 47 no 2 Spr 2005.
- Pinker, Steven. *The Better Angels of Our Nature*. New York: Penguin Books. 2012.

The Causes of Anti-Semitism and It's Solution

Jong-Won Lee (Keimyung University, Ethics)

In this paper, I will survey the cause, process, and result of Jew's persecution from the anti-judaism, and then, I will seek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The main incident that Jews became scapegoat of anti-judaism is the Black Death, Crusade, Pogrom, and the Holocaust.

In the Medieval Europe, when the Black Death broke out, Jews were persecuted because of the rumor that they put poison in food and springs. During the crusade, many Jews were raped and massacred by the crusade soldiers. As we can see the Holocaust, six million Jews were killed by Nazi.

In the social whirlpool like war and violence, Jews who accumulated wealth became easy targets by others. The suffering and persecution that Jews experienced was a dark shadow forced by a society. Jews as a minority who remained on the fringes of society suffered from innocent victim every time that the society was drawn into a whirlpool.

The main cause that Jews became victims was the sentiment of antisemitism - from the early church to spread throughout European society. The sentiment of antisemitism was interlinked with religious, economical, and cultural causes. These were two reasons that middle age people hate Jews and blame them. First, they crucified Jesus Christ on the cross. Second, they refused to convert to Christianity.

During Medieval times, the Jews recognized as a usurer became scapegoat of persecution by falsely accused of bloodsucker, after modern times these sentiment erupted as antisemitism. Antisemitism

made Jews become inductor of all evil and effect the mechanism to justify their violence on them. However, these ideologies is only denigration and repugnance toward the others based on the superstitious world-view and religious prejudice.

We should make efforts to prevent discriminations and violence towards minority, likewise anti-semitism. To achieve this goal, first, we should overcome the ideology by dissolving it's fiction and illusion. Second, we should expand the compassion for the weak. Third, we should respond for other's appeal with responsibility. Lastly, we should make efforts to establish the value of hospitality in our community.

Key words: Antisemitism, Scapegoat, Holocaust, Pogrom. Compassion, Responsibility, Hospitality

이종원 E-mail: jwlee7@kmu.ac.kr

투 고 일	2019.1.18
심 사 일	2019.1.29
계재확정	2019.5.16